

제10차 아시아수의학대회

● 일시 : 8월24일~28일 ● 장소 : 호주 퀸즈랜드

지난 8월24일부터 5일간 호주 퀸즈랜드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 수의학대회는 5백여명이 참가하여 2백3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국에서 27명이 참가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필자를 비롯한 서울대 수의대 김선중학장, 서울대 남치주교수, 강원대 서강문교수 등이 논문을 발표했다. 학회일정이 끝난 후에는 시드니대 수의과대 부속동물병원과 야생동물공원 등을 관람했다.

‘다양한 방면의 수의사’를 주제로 한 제10차 아시아수의학대회(10th Congress of FAVA)가 호주 북동 지역의 퀸즈랜드에 위치한 케언즈(Cairns)에서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었다.

케언즈는 살아있는 산호초가 퀸즈랜드의 해안가를 따라서 2,000km 이상 세계 최대의 길이로 이어져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의 북쪽 입구에 있으며, 사탕수수과 오팔 광산이 주산물 이었는데 현재는 휴양관광도시로 유명하고, 인구는 약 5만명인데 우리나라 교민 20가구가 살고 있다. 학회 장소인 케언즈컨벤션센터(Cairns Convention Center)는 시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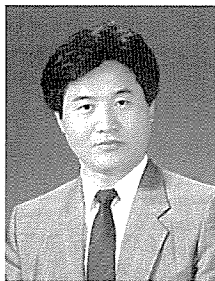
아시아수의사회(FAVA, Federation of Asian Veterinary

Association)는 1978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창설되어, 매 2년마다 수의학대회를 열고 있으며, 1982년의 제3차 아시아수의학대회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바 있다. 한편 호주는 아시아지역이 아니나 정관개정에 따라 1981년에 가입이 결정되었다. 제11차 대회는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2000년에 개최하기로 확정되어 있고, 제12차 대회는 2002년에 열릴 예정인데 파키스탄이 개최신청을 한 상태다.

5백여명 참가, 논문 2백30편 발표

약 5백명이 참석한 이번 10차 대회에서 2백30편의 논문이 20개의 분과로 나누어져서 8개의 발표장에서 발표되었다. 한국에서는 27명이 참가하였는데, 필자는 ‘Studies on ultrasonographic diagnosis of abdominal disease, genital disease and early pregnancy diagnosis in native Korean cattle’을 제17분과에서, 서울대 수의대의 남치주교수와 강원대 수의대의 서강문교수는 ‘Induction of local and general analgesia by electroacupuncture in dogs’를 제11분과에서, 그리고 삼성그룹 중앙개발의 신남식부장과 이재명주임은 ‘Introduction of companion animals in Korea’라는 연계를 각각 구두발표하였으며, 서울대 수의대의 김선중학장이 ‘한국의 수의학교육 현황’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대한수의사회에서 이길재 회장, 박근식부회장, 조영웅박사, 이원철상무 등의 대표진이 참가하여



金明哲
(충남대 수의과대 교수)



회원국가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였으며, 특히 영문으로 된 두권의 대한수의사회 홍보책자와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홍보물을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한국의 수의계와 관광자원을 홍보하는데 기여하였다.

대한수의학회 홍보책자 배포

특별 프로그램으로써 국제수역국(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의 후원으로, 뉴질랜드 농무성의 하워드 파로(Howard Pharo)박사가 '해면상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의 지역별 감시'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호주 동물건강시험소의 웨스트버리(Westbury)박사가 '호주의 리사바이러스(lyssaviruses)의 고찰'에 관하여 발표하였으며, 대만 농무성의 Shiegh박사가 '대만에서의 구제역(FMD, Foot and moth disease)'에 관하여 발표한 것을 포함하여 5개 연제의 강연이 있었다.

필자는 안과학, 소동물외과학, 마취학, 방사선학 등의 관심있는 분야의 발표장을 다니면서 새로운 기술 정보 등을 습득할 기회를 가졌다. 한편 호주 수의사들도 대체요법(Alternative therapy)으로서의 동양수의침기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토론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번 학회에서 호주의 경우, 개업 수의사들의 발표가 많았던 것이 특이하였으며, 특히 호주의 수의대 내에는 인턴제도 등을 통한 안과, 치과, 피부과, 방사선과, 산과, 내과,

외과 등의 전문의(diplomate)제도가 있어서, 개인동물병원의 경우 수의안과병원(Veterinary eye clinic)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수의학제도 6년제로 98학년도 입학생부터 개편 실시되므로 수의학문의 고도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초록만 게재된 프로시딩스만이 참가자들에게 배부되었는데, 전체 논문이 게재된 프로시딩스는 개별구입 희망자에 한해서 CD-ROM으로 3주일 후에 우송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구입신청을 해 놓았다. 아마도 학회 후원자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시드니대 부속동물병원도 방문

학회일정을 마치고 귀로에 시드니에 들어서, 호주에서 최초로 세워진 호주 최고의 명문대학인 시드니대학교의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을 방문하였다. 부속동물병원에 전임교수가 4명,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 2명, 방사선과 전문의 4명, 치과 전문의 2명을 포함한 50명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안과환측은 시드니 시내의 안과전문동물병원으로 보낸다고 하였다.

수술실습실에는 10대의 수술대가 놓여 있어서 학생들이 조별로 동시에 수술실습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수술실 및 수술준비실의 출입문은 유연하고도 투



▲ 호주 퀸즈랜드 케언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수의학대회에 참석한 필자

명한 플라스틱판으로 되어 있어서 수술자가 문에 무균처리된 손을 대지 않고 출입이 용이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었다. 5년제 수의학제를 갖고 있는 역사가 깊은 명문인 시드니대학의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시드니 교외에 있는 페더데일 야생동물공원(Featherdale wildlife park)에 들어서 코알라(Koala), 웬바트(Wombat), 캥거루(kangaroo) 등을 관람하였는데, 이러한 유대류는 호주대륙에만 서식하며, 특히 코알라와 웬바트는 호주의 남동부에만 서식하고 있고, 표범 등과 같은 육식 포유동물이 호주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들이 호주에만 남아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반달곰, 수달, 노루 등의 야생동물들을 보호 관리하여, 국민들이 자연과 야생동물들이 주는 기쁨을 향유하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⑤7